제5강 언어와 존재의 그늘에서 II-1

(1교시)

1. 존재의 언어: 道, 有無

-중국어에는 그리스어 'einai'(to be)에 해당하는 단어가 부재, 有 의미의 유사성

* 有의 두 가지 의미 : to exist(있다, 존재사)→有(~이 있다)와 所有(소유, 가지다)의 두가지로 해석(A.C.Gram)/ O is red(이다, 계사)

-有無의 두 가지 의미, 無의 體用論(체용론)적 해석(불교의 유입이후), 無의 우선성

* 有無의 두 가지 의미 : ~이 있다(처소, 소재) → There is (not)/~을 가지다(소유) → have (not)

⇒서양과 동양의 사유의 차이. 존재의 문제에 대한 재구성의 위험성이 존재한다.(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의 철학을 바라볼 때 왜곡될 수 있다.)

(2교시)

* 동양(중국)의 존재론적 사유 → '우주론'의 영역으로 다룸(cosmology). 차원이 다르다.
⇒ 동서양의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것. (20세기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의 서양에 대한 괴리감에서 유래된 것: 서양의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을 배우자는 지식인들의 움직임)

-□주역□(周易)「계사전」(繫辭傳): 形而上者謂之道(형이상자 위지도), 形而下者謂之器(형이하자 위지기)→ 형이상학의 유래

-언어, 존재 그리고 인식(번역어를 사용. 기호에 불과한 언어. 사고:도 범주의 다양성

-도가의 형이상학적 부활

⇒ **서양철학적 관점에서의 도가 해석의 의미)**

①동양철학자들과 서양철학자들간의 대화

②준거하는 텍스트가 동서양 양쪽에 걸쳐있다. (→양자가 같은 공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것)

2. 道

-道의 문자학적 기원: 首+辶, 길, 말하다, 인도하다(導).

-□관자□(管子) 「내업」(內業)의 경우: 氣(기), 精(정), 道(도)가 거의 동의어로 사용→**생명의 근원**/내재성

夫道者,	도라는 것은
所以充形也,	[마음의] 모습을 채우는 것이니
而人不能固.	사람은 이를 고정시킬 수 없느니
其往不復,	가면 오지 아니하고
其來不舍.	오면 머물지 아니한다.
謀乎莫聞其音,	고요하구나!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도다.
卒乎乃在於心;	갑작스럽구나! 내 마음 속에 있도다.
冥冥乎不見其形,	어둡도다! 그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도다.
淫淫乎與我俱生.	충일하구나! 나와 함께 나왔도다.
不見其形,	그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
不聞其聲,	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지만
而序其成,	차례로 다 이루어내니
謂之道.	그것을 일러 도라 하느니라.
凡道無所,	무릇 도에는 일정한 거처가 없으니
善心安愛[處].	좋은 마음에 편안히 깃든다.
心靜氣理,	마음이 고요하고 숨이 고를 때
道乃可止.	도가 이에 머문다.

-□노자□의 天地에 대한 우선성, "先天地生(선천지생)" "道生萬物(도생만물)"

-□주역□의 변화의 세계: "形而上者謂之道, 形而下者謂之器" "一陰一陽之謂道"

-□중용□의 도리의 세계: "天命之謂性(천명지위성), 率性之謂道(솔성지위도), 修道之謂敎(수도지위교)"

→인간은 본래 올바르게 사는 방식(어떻게 살 것인가)을 내재하고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도이며, 도를 닦아 수양하는 것을 가리켜 교(교화)라 한다.

3. 有無

-고대 중국의 우주론: 道(氣, 德) → 萬物, 내재하는 도, 근원으로서의 도

-有에 대한 無의 강조: [도가] 無形無名의 세계에서 有形有名한 세계로 ↔ 正名의 세계 [유가]

-불교에 의한 형이상학적 위기: 有無(本無, 末有)에서 空色으로 → 張載, "無無也"